



의정부주보

• 발행인 손희송 • 편집 홍보국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희로 261 의정부교구청 • 전화 031-850-1400(대표), 1433-5(홍보국)

103위 성인

성 황석두 루카 (1813-1866)



황석두는 충청도 연풍(延豊)의 부유한 양반 집안에 외아들로 태어났다. 부친의 뜻에 따라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올라가던 중, 우연히 천주교인과 사귀게 되어 입교하였다. 부친의 극렬한 반대에 맞서 3년 동안 말을 하지 않고 교리서를 탐독하자, 부친과 가족들도 결국 감화되어 입교하였다. 그는 덕행이 뛰어나고 교리 지식이 풍부해 주교와 신부들의 복사와 교우촌의 회장으로 활동하였다. 고 페레올 주교에게 금욕과 절제를 위하여 아내와 별거할 것을 허락받고 독신 생활을 하였으며, 안 안토니오 주교를 도와서는 교리서 번역과 교회 서적 출판에 참여하였다.

황석두는 1866년 3월, 먼저 체포되어 한양으로 압송되던 안 주교를 수심 리나 따라가다 그도 결국 체포되었다. 그리고 3월 30일, 충남 보령 갈매곶에서 54세의 나이로 순교하였다.

성화_조영동 작, 「한국 103위 순교 성인화 특별전」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4

대림 제2주일 · 인권 주일 · 사회 교리 주간

소리 주보 ▶



입당송 이사 30, 19.30 참조

보라, 시온 백성아. 주님이 민족들을 구원하러 오신다. 주님의 우렁찬 목소리를 듣고, 너희 마음은 기쁨에 넘치리라.

제1독서 바룩 5, 1-9

화답송 시편 126(125), 1-2 가. 2 다. 3, 4-5, 6 (◎ 3 참조)

◎ 주님이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

○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 주님, 저희의 귀양살이, 네 겹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

제2독서 필리 1, 4-6, 8-11

복음 환호송 루카 3, 4, 6

◎ 알렐루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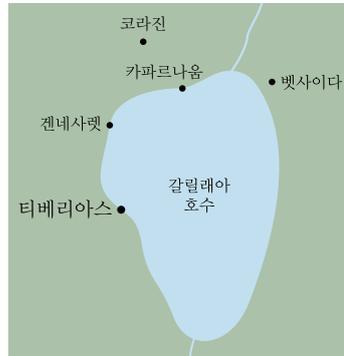
○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

복음 루카 3, 1-6

영성체송 바룩 5, 5; 4, 36

예루살렘아, 일어나 높은 곳에 서서, 하느님에게서 너에게 오는 기쁨을 바라보아라.

티베리아스



오늘날 티베리아스

오늘 복음에는 “티베리우스 황제”(루카 3,1)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요한 6,23 등에 언급되는 지명 “티베리아스”의 어원이 되는 인물입니다. 티베리아스는 갈릴래아 호수 서쪽에 자리한 도시로, 이곳을 세운 이는 헤로데 임금의 둘째 아들 헤로데 안티파스입니다.

로마의 힘을 업고 유다 임금이 된 헤로데(마태 2,1)에게는 사후 왕위를 이어받은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요, 첫째인 아르켈라오스는 유다와 사마리아를 차지합니다(2,22). 하지만 그는 폭정을 한 탓에 백성의 미움을 사 폐위당하고, 그 뒤부터 유다 땅에는 로마 총독이 파견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제5대 총독이 본시오 빌라도입니다. 본시오 빌라도는 기원후 26년부터 36년까지 직무를 수행하는데, 그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를 위해 세운 비문이 이스라엘의 카이사리아 유적지에서 발견된 바 있습니다. 이 비문이 지중해안의 항구 도시 카이사리아에서 발견됨으로써 빌라도가 머문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카이사리아였다는 사실도 확인됩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던 3대 명절 곧 파스카, 주간절(오순절),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유대인들의 반란을 견제하곤 하였습니다.

헤로데의 막내아들인 필리포스는 갈릴래아의 북부 지방을 차지하였습니다(루카 3,1). 그가 수도로 삼은 곳이 마태 16,13-20에 언급되는 카이사리아 필리포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수위권을 처음 인정하시고 그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신 곳이지요.

그리고 헤로데의 둘째 아들 헤로데 안티파스는 기원후 39년까지 갈릴래아와 페래아 지방을 맡아 다스렸습니다(루카 3,1). 이 헤로데가 세례자 요한을 참수하고(마르 6,17-29),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받으실 때 어느 정도 구실을 한 것으로 루카 23,6-16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티베리아스도 이 헤로데가 세운 것입니다. 당시의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말이지요.

다만 티베리아스는 원래 무덤 자리를 깎아 만든 도시였기에, 초창기 그곳에는 유대인들이 살지 않았습니다. 주검을 부정한 것으로 보는 민수 19,11 등의 율법 때문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티베리아스가 언급되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곳에 들어가셨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기원후 2세기에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유대교의 고명한 랍비 ‘시몬 바르-요하이’가 티베리아스를 정화하면서 종교와 학문의 중심지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곧 유대인들의 최고 의회가 티베리아스에 자리하게 됩니다. 본래 산헤드린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지만, 기원후 70년 로마군이 성전을 파괴한 뒤 여기저기 옮겨 다녔고, 결국 정화된 티베리아스로 이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5세기에는 티베리아스에서 예루살렘 탈무드(팔레스티나 탈무드)가 편찬되었고, 현재는 예루살렘과 더불어 유대교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교의 새 중심지가 된 티베리아스에 2000년 전 로마를 다스린 황제의 이름이 남게 된 역사가 무척 흥미롭습니다. 🌀

「모든 형제들」 프란치스코 교황의 복음화 사명 이행
- 평화 증진과 세계 공동체 건설

사회 현안을 보기, 복음과 전승, 이성과 경험으로 판단하기,
빛과 누룩으로 행동하기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마태 28,20)하려는
프란치스코의 「모든 형제들」

제8장 세상에서 형제애에 복무(service)하는 종교 ① - 종교의 궁극 기초와 그리스도교의 정체성

마지막으로 회칙 「모든 형제들」은 종교들, 특히 그리스도교가 사회 안에서 형제애를 구축하고 정의(사회적 우애)를 수호하는 데 복무해야 함을 밝히며 그 분발을 촉구합니다(271-280항). 회칙은 부정적 접근으로 절대 진리, 초월적 진리, 모두가 순종해야 할 진리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상대주의를 진단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으로 ① 둔감해진 양심, ② 인간을 신격화하고 세속적·물질적인 가치를 최고로 여기는 유물론적 개인주의, ③ 종교적 가치와 전통을 경멸하는 근시안적 합리주의를 꼽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대주의의 결과로 ① 공적 토론의 자리에서는 강한 자들과 전문가들의 목소리만 들리게 되었고, ② 집단 사이에는 대립 관계가 형성되었으며, ③ 인간의 초월적 존엄을 부인하고 오직 힘이 장악하는 전체주의가 발흥하게 되었다고 지적합니다.

한편, 회칙은 긍정적 접근으로 종교가 세상에 유익하다는 근거를 종교인의 신앙 체험, 축적된 지혜, 약점과 실패가 알려준 교훈에서 찾습니다. 회칙은 종교인들의 ‘하느님(신)에 관한 참된 증언’과 ‘하느님(신)을 찾으려는 정직한 노력’이 ① 모든 사람의 인격과 그 존엄을 존중하게 하고, ② 서로를 여행의 동반자이자 형제자매로 알아보게 하며, ③ 정의를 수호하는 데 공헌하게 함으로써 ④ 인류를 인도할 희망과 이상(理想)을 품을 수 있게 한다고 밝힙니다.

이로써 회칙은 교회가 ‘정치 생활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도 결코 자신의 사명을 ‘사적(私的) 영역’으로 제한하지 않으며, 공동선에 부단한 주의와 온전한 인간 발전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삶의 정치적 차원’을 단념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통념상 우리의 삶은 문화·정치·경제·과학·기술·외교적 영역 등으로 분류되는데, 교회는 각 영역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어떤 조건에서든 개인이든 집단이든, 모든 영역의 현세 활동이 반드시 ‘인간 존엄의 증진, 공동선의 실현, 온전한 생태의 삶’을 지향(指向)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이 숭고한 목표 때문에, 교회는 “우애, 평화, 조화를 구축하고, 또 진리의 정신과 사랑 안에서 영적·도덕적 가치들과 종교적 체험을 공유하려”(279항) 다른 종교들과 대화하고 협력하며, 그 모범으로 그리스도교 일치 역시 도모합니다.

회칙은, 다른 종교인들이 그들의 샘에서 물을 마신다는 사실을 존중하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인간 존엄과 형제애의 마르지 않는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물을 마신다는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를 촉진하는 사명(使命, mission)이 교회를 복음화한다고 강조합니다. “복음이라는 음악이 가정·광장·작업장·정치·금융 생활에서 어떤 소리도 내지 못한다면, 모든 사람의 존엄을 수호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선율을 더는 듣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277항). 교회는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는 그만큼 복음화(聖化)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복음화의 주체는 언제나 그리스도이십니다. ☺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래아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들은 거기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마태 28,10)

신장이식 수술을 위해 입원한 50대 여성 환자를 위한 방문이었다. 대개 이 수술을 받는 환자들은 오랜 대기 기간을 거쳐 기증자를 만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환자는 얼굴에 기쁜 내색 하나 없이 수심(愁心)만 가득했다. 얼마나 울었는지 눈도 퉁퉁 부어 있었다. 환자는 끝까지 수술을 거부하지 못한 자신을 원망하며 울었던 거다.

환자는 딸이 이식에 적합한 대상으로 판정된 것을 알았지만 못 들은 이야기로 하고 다른 기증자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려 왔다. 아직 결혼도 안 한 딸의 신장을 받는다는 게 엄마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기에, 딸의 간청에도 지금까지 버텨온 환자였다. 하지만 얼마 전 ‘이제 더 지체하다가는 목숨이 위태롭다.’는 의사의 말에 온 가족이 들고일어나 더는 고집을 부릴 수 없다고 했다.

“신부님, 아무래도 제가 정말 나쁜 짓을 하는 것 같아요. 세상 어떤 어머니가 자식 목숨줄 끊어가서 제 명줄을 늘리겠어요? 저는 정말 나쁜 엄마예요.” 환자의 심정에 공감한 나는 가능한 오랫동안 환자의 곁을 지키면서 위로하고 싶었다. 그리고 이런 내 마음을 아는지 환자는 언제부터인가 눈물을 흘리면서 소리 내어 울다가, 다시 자신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고백하기를 되풀이하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환자의 울음과 자책(自責)이 일정한 패턴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보니 이제까지 환자가 기증자인 딸의 심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환자가 다시 자책을 시작할 때 그의 자기연

민(自己憐愍)을 직면(直面)하게 하고 싶었다.

“정 그렇게 마음에 걸리면 지금이라도 따님의 신장을 안 받으면 되잖아요?” 환자는 두 눈이 휘둥그레졌고, 나는 내친김에 한마디 더 보탰다. “환자분이 좋은 엄마가 아니라는 것만 슬퍼하시느라 엄마를 향한 따님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으신 거 같아요.” 하염없이 흐르던 환자의 눈물이 거짓말처럼 그치고, 울먹이던 소리도 순식간에 사라졌다. 짧지만 무거운 침묵이 흐른 다음, 환자가 입을 열어 말했다. “그리고 보니 저는 이대로 죽는 게 너무 두려웠네요. 딸에게 이식받아서라도 살고 싶었는데 엄마가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게 너무 미안해서... 아닌 척하느라 여태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해주지 못했어요. 제가 얼마나 살고 싶어 하는지, 또 아이가 얼마나 저를 살리고 싶어 하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려움에 문을 닫아건 제자들을 갈릴래아로 부르셨던 주님께서는, 그들이 그곳에서 당신 없인 비참할 수밖에 없는 본인들의 처지를 인정함으로써 자유롭게 되기를 바라셨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미안함에 문을 닫아걸었던 이 환자도 갈릴래아로 불러 자기 자신을 보게 하셨다. 거기서 환자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엄마를 위한 딸의 희생을 값진 선물로 받는 자유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나의 주님께서는 분노가 아닌 직면이었다고 여전히 우기고 싶어 하는 나를 아직 기다리고 계신다.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인정할 때 비로소 자유로워지는, 저기 저 갈릴래아에서. 🌍

2025년 정기 회년 의정부교구 전대사 수여 지침

2025년 정기 회년 대사 수여 교령에 근거하여, 의정부교구 전대사 수여 지침이 발표되었습니다. 모든 신자는 자기 죄에 따라 현세와 사후에 연옥에서 받아야 하는 잠벌을 용서받는 전대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리기도의 형태로 연옥 영혼들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1. 전대사의 통상 조건들이 충족될 때

① 영적 조건: 고해성사, ② 성사적 조건: 영성체, ③ 기도 조건: 교황님의 지향에 따라 기도

2. 순례지를 방문하여 미사에 참석할 때

① 회년 순례지 방문, ② 미사 참석, ③ 영성체

3. 순례지를 방문하여 공식 전례에 참석할 때

① 회년 순례지 방문 ② 말씀 전례, 성무일도, 십자가의 길, 묵주기도, 개별 참회 예식 중 하나에 참여

4. 순례지를 방문하여 정해진 기도를 바칠 때

① 회년 순례지 방문, ② 30분 이상 성체조배와 묵상, ③ 주님의 기도, ④ 사도신경, ⑤ 성모님께 간구

5. 순례지 방문이 어려울 때

① 자기 거주지에서, ② 주님의 기도, ③ 사도신경,
④ 회년의 목적에 부합하는 자유 기도, ⑤ 자기 삶의 고통을 하느님께 봉헌

6. 교육을 통해

① 선교 활동 참여, ② 영신수련, ③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과 「가톨릭교회교리서」 교육 [中 1]

7. 방문을 통해

8. 참회의 정신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실천을 통해

9. 교황강복을 통해

※ 전대사는 하루에 한 번만 얻을 수 있습니다. 단, 연옥 영혼을 위해 애덕을 실천한 신자가 당일 두 번째 미사에 참석해서 영성체를 한다면, 같은 날 두 번의 전대사를 얻을 수 있으나, 두 번째 전대사는 연옥 영혼에게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회년 순례지 등 더 자세한 내용은 QR 코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 ▶



전신자 성경 읽기 12/8(주일)~14(토) : 요한 1,19-34



12/28(토) 해설 “천주교의정부교구” 채널 시청

[담화] 제43회 인권 주일, 제14회 사회 교리 주간 담화

인권 주일과 사회 교리 주간을 맞이하여 주교회의에서 담화를 발표하였습니다.

QR 코드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 ▶



미사 · 피정 ▶▶

주교좌 의정부 성당 성음악 미사

천 년의 전통을 이어온 그레고리오 성가로 성음악 미사를 봉헌합니다.
「로마 미사 경본 제3표준판」에 따른 고유 성가로 하느님께 깊은 울림의 찬양을 올립니다.
일시: 12/15(주일) 11시
장소: 주교좌 의정부성당 3층 대성전

생활성가와 함께하는 한마음 청소년 음악 피정

1차: 2/14(금)~15(토), 2차: 2/15(토)~16(주일)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인원: 100명 (선착순) / 회비: 10만원 (식대 포함)
문의: 010-5399-7626 권성일 미카엘

구산성지 신앙선조 영성 피정

“부귀와 공명과 세락을 경천이 여기면 하느님을 얻으리라.”
일시: 12/14(토) 14시~18시 / 장소: 구산성지
내용: 성경직해(신앙선조의 성경) 풀이, 미사 지도: 정종득 신부, 성가: 고영민 / 회비: 1만원
문의: 031-792-8540 구산성지

의정부교구 청년 성령 묵상회

일시: 12/14(토), 15(주일) 09:30~16시
장소: 예수마음배움터 (파주시 한빛로 21)
주제: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루카 11,20).
회비: 7만원 / 문의: 010-9574-6469

제주 성 이시들 자연순례 피정

성 이시들 목장 내 성지에서 쉽고 성지순례 제주여행과 자연순례 (2025년 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구반장, 소규모 모임
연말연시(하라산·해돋이): 12/29(주일)~1/1(수)
눈꽃산행: 1/11(토)~13(월), 1/16(목)~18(토), 1/20(월)~22(수), 2/7(금)~9(주일), 2/21(금)~23(주일), 2/25(화)~27(목)
문의: 064-796-4182, 02-773-1455

성 이나시오 영신수련 피정

일시: 2/6(목) 17시 ~ 9일(주일) 16시 [3박4일]
장소: 제주 성 이시들 피정의 집
동반자: 조현철 프란치스코 신부 (예수회)
회비: 30만원 (농협: 301-0197-3172-01)
문의: 064-739-0951 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토아울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일시: 매주(화) 12:30~16시, 명동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종국 신부
강사: 12/10 김재덕 신부, 12/24 이상기 회장
문의: 010-5514-4077 회장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12/14(토) 10시, 풍동 성당
12/21(토) 10시, 주교좌 의정부 성당
문의: 02-3673-2525

의정부교구 성령쇄신 금요일 기도회

일시: 12/13(금) 21시~24:30
장소: 마두동 성당 대성전
주제: 찬양과 치유기도회
문의: 010-2127-0032

교육 · 모집 ▶▶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국내입양상담: 02-764-4741~3
www.holyfcac.or.kr

파주 EXODUS 사회교리 특강

일시: 12/21(토) 19:30~21시
장소: 정발산 성당 1층 강당
주제: 전장의 시대, 평화의 길
강사: 강주석 베드로 신부
문의: 031-948-8105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위치: 인천 서구 당하동 산152-1 백석묘지 내
준공: 2025년 상반기 준공(예정)
접수: 인천교구청(송림동) 방문 및 온라인 위치 선정
서류: 교적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사본
봉안: 60년 (30년, 추가 30년 가능)
봉헌금: 400만원, 500만원
접수: 032-765-7251, haneul.caincheon.or.kr

예수회 센터 겨울방학 특강 - 1월 개강

구약성경 아카데미: 모세의 삶과 신앙_주원준 박사
구약으로 만나는 하느님의 여러 얼굴들_김민 신부
영성과 심리의 통합 세 번째 길_최지원 수녀
명화로 만나는 그리스도교 영성_박혜원 강사
각 6~8주/ 현장 또는 동영상 강의 선택 수강
신청: 02-3276-7733, http://center.jesuits.kr

바오로딸 성경학교 신입생 모집

과정: 입문·중급·성 바오로 신학영성 중 선택
방법: 우편과 이러닝(동영상 강의) 성경 공부
접수: 1/31(금)까지, https://uus.pauline.or.kr
문의: 02-944-0819~23, 010-5584-8945

파주 베타니아 노엘 밥집 및 클리닉 봉사자 모집

노엘 밥집: 매월 둘째(주일) 12:10~13:30
단체 봉사 가능
베타니아 클리닉: 매월 둘째(주일) 14시~16:30
내과, 가정의학과, 정형외과, 소아과 진료 의사 모집
문의: 010-2032-0455 파주 베타니아

자원봉사자 모집 - 치위생사, 치과 조무사

이주민을 위한 무료 치과 진료
대상: 치과에서 근무 경험이 있는 분
일시: 주일 13시~17시 [월1회]
문의: 031-948-8105 파주 EXODUS

의정부교구 기사사도회 모집

내용: 교구 행사 시, 교통 봉사 및 질서 유지
문의: 010-2762-9575 조성환 가브리엘 회장

JPIC(정의, 평화, 창조보전) 양성학교 2025년 신입생 모집

 모집: 1/2(목)~12(주일)
 면접: 추후 개별통보
홈페이지 지원서 양식 작성 후, 이메일 제출
문의: 010-3336-7324, jpicslf@daum.net

성가발성 노래교실

CPBC <다함께 성가를> 이호중 교수 직강
시스티나음악원: 일산 (금) 11시
문의: 010-9842-8818

제25회 가톨릭평화방송 겨울방학 영어캠프

미국 (1/15~2/4) [3주]: UCLA·UC버클라·스텐포드 재학생 간담회, 유니버설, 디즈니랜드, 그랜드캐년, 실리콘밸리, 샌프란시스코
사이판(1/11~2/4) [4주]: 가톨릭국제학교 정규수업, 마나가하섬, 워터파크, 다양한 현지 액티비티
문의: 02-734-0999, cpbccamp.com

가톨릭꽃동네대학교 2025 신입생 정시모집

가톨릭 보건·복지 특성화 대학, 취업률 79.8%
전국 6위, 신입생 전원 장학금 지급
신입생 기숙사 100% 입사 가능
모집: 간호, 자율전공 (사회복지, 상담심리)
접수: 12/31(화)~1/3(금)
문의: 043-270-0100, 0119

행신2동 성당 관리인 채용

자격: 고졸 이상, 세례 받은 교우
업무: 시설관리, 영선관리, 경비 등
접수: 1/17(금)까지
문의: 031-979-4071
※ 자세한 내용은 교구 홈페이지 참조

서강대학교 미래교육원 사회복지 현장 실습

기간: 1/6(월)~2/24(월) [8주간]
주제: 사회복지 현장 실습 (전필 3학점) 수강생 모집
접수: scec.sogang.ac.kr 온라인 접수
문의: 02-705-8214
010-6206-7573 강성주 주임교수

파주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도란도란' 이용자 모집

대상: 만 18세 이상, 지적·자폐성 발달 장애인 (파주, 고양, 서울시 순으로 송영서비스 가능)
문의: 031-942-8000, cafe.naver.com/pjidoran

티업오신마리아성심 재속3회 지원자 모집

첫모임: 12/21(토) 09:50
장소: 파티마 평화의 성당 (파주)
대상: 봉헌의 삶을 살고자 하는 55세 이하 신자
문의: 010-2607-6324, 010-4383-5050

오남 성당 성가대 지휘자 모집

일시: 매 주일 11시 교중미사
자격: 천주교 신자로 성가대 지휘 유경험자
서류: 교적증명서, 이력서(학력, 일반경력 및 가톨릭음악 관련 활동 포함)
접수: 우편 또는 이메일 onam1@uca.or.kr
성가대 연습: 평일 및 주일
※ 소정의 수수료 지급 (채용시 마감)

오남 성당 사무원 모집

자격: 세례받은 지 3년 이상
업무: 사무행정, 회계업무, 행사지원 (경력자 우대)
서류: 자기소개서, 본당신부확인서(또는 추천서), 이력서, 교적사본, 관련자격증사본(해당자)
접수: 채용 시까지
방법: 우편 또는 이메일 onam1@uca.or.kr 접수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꽃마리청소년회복지지원시설 전문 봉사자 모집

대상: 청소년, 사회복지, 상담학과 전문학사 이상 학력 또는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한 여성
인원: 5명 내외 (자원봉사 시간 인정)
문의: 010-5169-7977, flowermail@daum.net
꽃마리청소년회복지지원시설



꼬메스심리상담소 - 도미니코 수도회

상담을 통한 치유와 성장이 있는 따뜻한 동행
내용: 가족, 부부, 갈등, 심리, 영적성장
방법: 대면, 온라인, 전화 모두 가능
문의: 010-3201-0520 노경덕 신부

늘푸른 자활의집 - 무료 주거형 치료공동체

저소득층 알코올, 도박, 컴퓨터 중독치료
대상: 성인 남성 / 그리스도수도회 운영
문의: 031-953-3492, evergreentc.modoo.at

가톨릭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3/17(월) 이탈리아, 알프스, 프랑스 (11일, 550만원)
3/17(월) 유럽 4개국 성모님 발현지 (12일, 535만원)
3/18(화) 산티아고 도보 순례 117km (12일, 495만원)
4/22(화), 5/6(수), 5/13(수), 5/20(수)
이탈리아 (11일, 465만원)
5/19(월) 멕시코, 페루, 아르헨티나, 브라질 (1075만원)
문의: 010-5235-3533 가톨릭회관 619호

라파엘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2/5(수) 나가사키 (4일, 139만원, 아시아나)
2/12(수) 성모님 발현지 (12일, 495만원, 대한항공)
2/24(월) 이집트 일주 (14일, 530만원)
3/3(월) 특가 튀르키예, 그리스 (11일, 385만원)
3/14(금) 시칠리아, 몰타 (10일, 485만원)
3/9(주일) 포르투갈 일주 (9일, 299만원)
4/22(화) 이탈리아 일주 (11일, 415만원)
문의: 02-778-8565 라파엘여행사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2/8(토)~19(수) 성모 발현지 (545만원, 아시아나)
2/24(월)~27(목) 홍콩, 마카오 (150만원)
3/9(주일)~20(목) 파티마, 스페인, 루르드 (460만원)
3/11(화)~21(금) 동부유럽 4개국 (395만원)
3/13(목)~23(주일) 서부지중해 크루즈 (519만원)
문의: 02-2281-9070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전문병원, 중독중점 (도박, 인터넷게임)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입원 및 외래 통원치료
진료: 월~금 (09시~17시)
장소: 고양시 백석역(3호선)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www.karf.co.kr

일본 가고시마 교구 성지순례

가고시마, 북해도, 아키타, 나가사키, 도쿄, 오사카
120만원, 3박4일 / 문의: 010-3645-9028

미리내천주성삼성직수도회 성지순례

4/24(목)~5/5(월) 성모 발현지 (520만원)
문의: 010-7374-3217

예수회 후원회 성지순례

1/14(화)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130만원)
2/10(월)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130만원)
2/17(월) 베트남 다낭 성모성지 (5일, 150만원)
3/14(금) 이태리 수도원 및 명소 탐방 (12일, 560만원)
3/28(금) 사도 바오로 발자취 튀르키예, 그리스 (12일, 480만원)
5/6(화) 스페인, 루르드, 파티마 (12일, 560만원)
문의: 02-722-8366 크로바여행사

산티아고 순례길 800KM - 42일

3/30(주일) 출발 / 회비: 599만원 (+2,100유로)
가톨릭 트래블 - 루르드, 파티마 포함
문의: 070-4086-0207, catravel.co.kr

성지순례 & 성 베네딕도 왜관수도원 전례

2/15(토)~17(월): 대구17
3/1(토)~4(화): 전주11~광주4,
3/15(토)~3/18(화): 부산8~마산6
4/23(수)~27(주일), 7/5(토)~9(수): 울릉도~독도
출발: 가톨릭회관 후문 (서울 명동)
2/5(수)~10(월): 베트남 성지 (다낭, 라방, 짜끼우)
5/3(토)~18(주일): 동유럽 (체코, 폴란드, 메주고리에)
문의: 010-3807-1784 라이시돌

(소규모 양로원) 우양의 집 물품 판매

가격: 청국장(500g) 1만원, 된장(1kg) 2만원,
연잎밥 1만원(택배가능)
모든 재료는 국내산으로 직접 제조
문의: 031-943-2120, 010-9271-4694
프란치스코전교봉사수녀회

DIocese of Uijeongbu

구인

동두천어린이밥집 포이마이노 직원 채용

모집: 1명 (계약직, 추후 정규직 재임용 가능)
근무: 주5일 (40시간)
장소: 어린이청소년밥집 포이마이노 (동두천시 생연동)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증명서,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1부
제출: 0810369khk@gmail.com / 문의: 010-3946-9018

전시

<은총> 장미라 개인전 - 이콘 성화展

일시: 12/14(토)~27(금) 10:30~17:30
장소: 갤러리 평화 (의정부시 시민로 35번길 36)
문의: 031-877-9153
※ 공휴일, 월요일 휴무

한국 교회의 수호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

12월 8일은 ‘한국 교회의 수호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입니다. 본당이나 교구의 경우처럼 한국천주교회 전체에도 주보가 있는데, 바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입니다. 1838년 12월 1일, 제2대 조선교구장 앵베르 주교는 그때까지 주보로 모시던 성 요셉 대신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를 조선 교구의 주보로 인가해 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1841년 8월 22일, 그레고리오 16세 교황(1831-1846 재위)은 이를 허락하였습니다. 1898년에는 명동대성당이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께 봉헌되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마리아가 원죄 없이 잉태되셨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루카 1,28)라는 가브리엘의 인사에서 성모님이 이미 어떤 은총 지위에 계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에페 1,3-14에는 하느님께서 세상 창조 이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하느님의 은총이 인간의 죄를 앞선다는 사실을 알려 줍니다. 마리아께서 원죄 없이 잉태되셨다는 교리의 핵심은,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육신을 물려받고 성령께서 거처하신 마리아의 태중은 무죄하고 흠 없이 깨끗하다는 믿음입니다. 대축일의 본기도는 이 점을 잘 설명해 줍니다: “하느님, 하느님께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통하여, 성자의 합당한 거처를 마련하시고, 성자의 죽음을 미리 내다보시어, 동정 마리아를 어떤 죄에도 물들지 않게 하셨으니...”

8세기 초반부터 동방 교회에서는 ‘마리아의 탄생’과 관련해 12월 9일에 ‘하느님의 어머니’(Theotokos)의 어머니 성녀 안나의 잉태 축일을 지냈습니다. 10~11세기 영국에서는 12월 8일에 성모 마리아의 잉태 축일을 지냈고, 이는 곧 프랑스 전역에도 전해졌습니다. 중세 때 마리아의 원죄 없는 잉태에 반박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치열한 논쟁 중에도 이 축일은 교회 안에서 계속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1854년 12월 8일, 복자 비오 9세 교황(1846-1878 재위)은 회칙 「형언할 수 없는 하느님」(*Ineffabilis Deus*)을 통해 마리아의 원죄 없는 잉태를 믿을 교리로 선포하였습니다: “지극히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는 잉태되시는 첫 순간부터 전능하신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과 특전으로,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공로를 미리 입으시어, 원죄의 온갖 더러움에 물들지 않게 보호되셨다”(DH 2803). 여기서 주의할 점은 교의(敎義) 선포가 새롭게 교리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있던 교리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올해는 12월 8일이 주일과 겹쳐 전례일의 등급상 대림 시기의 주일이 성모님의 대축일보다 우선하기에, 이날을 하루 늦춰 12월 9일에 지냅니다. 대축일 미사의 감사송을 통해 그 의미를 되새겨보도록 합시다: “주님께서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원죄에 물들지 않게 지켜 주시고, 은총으로 가득 차게 하시어 성자의 맞갖은 어머니가 되게 하셨나이다. ... 지극히 깨끗하신 동정 마리아에게서 저희 죄를 없애시는, 죄 없으신 어린양 성자께서 나셨으니, 주님께서 동정 마리아를 모든 피조물 위에 들어 높이시고, 주님의 백성을 위하여, 은총의 전구자요 거룩한 삶의 모범으로 미리 정하셨나이다.” ☪

홍유선 임마누엘	주 임 신 부	<h2 style="text-align: center;">행 주 성 당</h2>  <p style="text-align: center;">성모몽소승천</p>	토 요 일	17:00 토요저녁주일미사
031-974-1728	사 무 실		주 일	09:00 주일 아침 미사 11:00 교 중 미 사
031-972-8537	팩 스		평 일	11:00 월, 화, 수, 목, 금
sd.uca.or.kr/hjsd1909	홈 페 이 지		성 시 간	15:00 매월 첫 금요일
고양시 덕양구 행주산성로144번길 50	주 소		성모신심미사	11:00 매월 첫 토요일
			병자영성체	매월 첫 목요일 미사 후

**행주성당은 로마 성모대성당과
특별 영적 유대로 결합된
성모순례지 성당입니다.**

행주성당 전대사를 위한 통상적 조건

1.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를 바친다.
2. 행주성당에서 거행되는 거룩한 예식에 경건하게 참여한다.
3. 주님의 기도와 신경을 바친다.

본당공지

■ 행주 성당 전대사 미사

일 시: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1시
한국 교회의 수호자, 원죄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에는 전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사 중에 안수 예절이 있습니다.

■ 12월 봉성체

일 시: 12월 12일 목요일 오전 11시 미사 후

■ 성탄 판공 성사

성탄 판공 성사는 성탄 대축일 전까지 매 미사 전, 후에 보시고 성사표는 고해실 바구니에 넣으시거나 본당 사무실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 홍유선 임마누엘 주임 신부님 영명 축일 영적 예물

12월 25일은 주님 성탄 대축일이며 행주 성당 주임 신부님의 영명 축일입니다. 신부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교우 여러분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누어 드린 영적 예물 카드를 작성하여 구역 반장님께 전달 하여 주시시 바랍니다.

■ 형제회 월례회의

일 시: 12월 8일 일요일 오전 11시 교중 미사 후

우리들의 정성 (11월 25일 - 12월 01일)

교 무 금 5건	570,000원
주 일 헌 금	802,000원
하느님의 집 2차	442,000원

■ 교중 미사 주송자, 예물 봉헌 담당

12월 08일	주송자	신은석(안젤라)
	류병운(미카엘), 김인수(미카엘라)	
12월 15일	주송자	전옥자(수산나)
	양경희(루시아), 류은희(소피아)	

공동체소식

■ 이번 주 본당 축일 명단

7일(암브로시오): 이종민
13일(루시아): 최순란, 이유신, 김경순, 양경희, 임영미

전례

■ 12월 성시간

일 시: 12월 13일 금요일 오후 3시
많은 분 들이 참석하시어 주님께 드리는 기도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 안내

12월 24일(화)		12월 25일(수)
평일 미사	오전 11시	오전 11시
성탄 성야	오후 8시	

■ 자선 주일 2차 헌금

다음 주일에는 자선 주일 2차 헌금이 있습니다.

행주성당의 성역화를 위하여 후원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